

깊은 기도

작성자 : 김혜영(미국 샌프란시스코 반석교회)

작성일 : 2012년 2월 25일 정오기도 중

(작년에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전도하셨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을 배우다가 끊어져서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전 잠언으로 ‘빼앗긴 생명도 깊은 기도로 영계에 들어가서 찾아올 수 있다.’ 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다시 깊은 기도를 하니 예수님께서 구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대로 하여 그 생명을 다시 말씀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 말씀

내가 내 말씀을 생명시하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

내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수준의 차이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는 하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며

이해하고 실행도 하여 결실을 맺는 자도 있다.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말씀을 네 문제와 연결시키고

네 인생에 적용시키는 단계이다.

내가 선생을 통해 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그때에 해당되는 완벽한 답이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답을 찾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트리고 있구나.

말씀 속에서 자기 답을 찾아

자기 인생 문제도 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한다.

깊은 기도가 너희의 답이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너는 어찌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나의 구상을 받게 되었느냐.

(지금부터 10여 일 전 갑작스런 계기가 있어서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이때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를 하나님
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매일 최대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지금은 너
무나 기도해야 되는 때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의
식하지 않고 매일 새롭게 도전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 코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깊은 기도의 첫째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지금은 어려우나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깊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을 깔게 된다.

너희 선생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느냐.

선생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기도를 잊지 않았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했다.

그러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환란이 문제가 아니다.

거친 풍랑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문제다.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맨 자는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며 내게 감사하게 된다.

내가 제자들을 꾸짖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자들이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며 요동칠 때

나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었노라.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파도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고 험해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네 마음 가운데

흑암이 일으키는 거친 비바람과 파도가 느껴진다면

너는 아직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네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때

너는 비로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한계에 도전하여라.

시간의 한계, 주변 상황의 한계,
내가 처한 여건의 한계, 너의 기도 시간의 한계에
매일 도전하면서 올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나를 차지하고 가거라.
매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단계에 올라오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너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너의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나를 통한 기쁨이 커지게 된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 문제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마침내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 섭리사 전체의 문제는
섭리사 전체가 이 같은 단계에 올라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깊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섭리의 빛이 찬란하게 차올라야 된다.
섭리의 빛이 커지고 찬란해질 때
흑암이 물러가게 된다.

깊은 기도를 통해 흑암을 물리쳐라.

또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
깊은 기도의 단계이다.

평소 기도할 때 느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자기의 뿌리 깊은 죄가 보인다.

이제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지 못한 부분,
자기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선연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올라와서 보고 느끼고 회개함으로
어서 버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해져야 네 영이 빛을 발하게 된다.

영은 빛으로써 가치성을 발휘한다.

더 빛나는 영이 나와 더 가깝다.

네 죄를 온전히 청산해야만

네 영이 더욱 빛나게 되고

네 영이 빛나야 나와 가깝게 산다.

그러니 회개가 좋은 것이다.

회개가 좋은 단계에 들어와야 된다.

회개가 재미있는 단계에까지 들어와야 된다.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를 하려면
선생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자 해야 된다.
너희들 대부분은 선생에 대해
계속 비슷한 기도만을 하고 있다.
매일 선생을 위해 기도한다고는 하나
매일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할 뿐이다.
선생에 대한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선생에 대해 더욱 간절히 느끼기를 바라고 소망하여라.
선생을 깊이 느끼는 만큼
선생에 대해 깊이 기도할 수 있다.
선생에 대해 깨닫는 것도
그만큼의 마음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 몸부림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느끼게 될 것이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알게 해 줄 것이다.

하늘은 지금 깊은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깊은 기도를 모으는 향아리가 따로 있다.
이 깊은 기도의 향아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노라.
섭리사의 깊은 기도가 넘쳐날 때
흑암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깊은 기도로 흑암을 물리치도록 하여라.

1000명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한 사람의 깊은 기도의 위력이 크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깊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너희 모두가 매일 기도의 수준을 높여 가기 바라노라.